

민주노동당의 10석 20석은 '균형의석', '필요의석'

8 민주노총 | © 승인 2008.04.08 13:09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국민호소문 발표.. 민주노총, 전농 지도부 참여하여 민주노동당 지지호소

18대 총선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날 민주노동당 선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권영길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마지막 총력유세에 나섰다.

이날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는 천영세 (당 대표,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수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민주노총 전 위원장), 윤금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문성현 (민주노동당 전 당대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정갑득 (전 금속노조 위원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덕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 민주노동당․민주노총․전농 지도부가 총 출동하여 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천영세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국민들을 만나고 지금 이 시각에도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을 당원들과 배타적 지지단체인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한청의 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견문을 낭독하였다. .

민주노동당 선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17대 국회 때 10명의 국회의원뿐이었지만 민주노동당97%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생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왔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노동당의 10석, 민주노동당의 20석은 대한민국 정치를 제대로 만드는 '균형의석'. '필요의석'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은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 진보진영을 하나로 모으고, 보수대연정에 맞서는 진보대연합, 진보대단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라며 진보적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날 참여한 윤금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진보정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이번 선거에 나타나리라는 굳은 믿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고, 김덕윤 전여농 회장은 "농민으로서 곡물값,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 너무 살기가 힘들다." 면서 "노동자․서민을 위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에게 표를 달라."며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물이 사유화 되고 전기․가스가 사유화되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임을 주장하고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곳 영남에서 당선시키고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겠다."며 18대 총선의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노동당은 대국민호소문 발표와 함께 ▲등록금 상한법 ▲비정규직 법안 처리 ▲원자재가-납품원가연동제 법제화 ▲지역경제활성화법안 ▲농가안정화법안 등 5대 민생 입법과제를 발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이것을 18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 시작 100일 안에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선거운동 마지막 날, 권영길 후보는 선거 운동원들은 시장과 상가, 학교 등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 창원을 지킬 자존심이 권영길임을 알리며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또 전국에서 모여든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도 각자가 맡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민주노동당의 승리와 권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쏟을 예정이다.

총선취재팀=정운기자

